

2016 한국성악교육연구회 학술대회 보고

고미현 교수(한국교원대학교)

1. 개요

한국음악교육학회 산하기관 한국성악교육연구회는 2016년 11월 9일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관 연주홀에서 ‘교과서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성악, 기악, 작곡, 피아노, 지휘 전공주임교수에서부터 현직교사 및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한국성악교육연구회는 금번 학술대회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 외국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가창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해설을 병행한 연주곡들을 연구 발표하였다. 한국성악교육연구회 고문이자 자문위원인 한국교원대학교 민경훈 교수는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속의 화려함에만 노출된 채 건전하고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금번 학술행사에서 다루어지는 곡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곡들이 자주 연주되고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외에도 한국교원대학교 작곡전공 고영신 교수와 민경훈 교수의 창작 성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가창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2. 학술행사 세부내용

한국성악교육연구회 회장 고미현 교수의 진행 및 해설로 진행된 금번 학술제는 작품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작곡자의 생애, 작품의 작곡배경 등을 심도있게 조명하고 연주표현의 실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한국가곡 프로그램에서는 작곡가 이수인의 ‘별’과 ‘고향의 노래’, 현제명의 ‘산들바람’, 김효근의 ‘눈’ 등 대표적인 한국가곡들이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전인근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연주자들의 연주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여러 참가자들에게는 친숙한 한국가곡 감상을 통해 일선 수업내용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과 이를 활용한 수업목표와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며, 가창 수업에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미현 교수는 작곡가 이수인과 현재명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이야기하고 서양의 예술가곡과 한국가곡의 예술성에 대해 비교설명하며 향후 우리 정서와 어울리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의 예술미를 지닌 가곡들이 더 많이 작곡되고 활발하게 연주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부 창작곡 프로그램에서는 작곡가 고영신 교수의 ‘꿈 속에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민경훈 교수의 ‘황새’가 연주 발표되었다. 창작곡 ‘꿈 속에서’는 꿈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몽환적인 느낌의 현대가곡으로 서원대 박영진 겸임교수가 연주하여, 프랑스 예술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천재 음악가 앙리 뒤파르크(Henri Duparc, 1848~1933)를 떠올리게 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너를 위하여’는 시인 김남조의 배려와 사랑의 힘을 그려낸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서원대 강진모 겸임교수의 노래와 한국교원대학교 권수미 교수의 피아노 연주로 발표되었다. 참석자들은 풍부한 화성과 현대적인 느낌의 성악곡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속에서 학습요소들을 도출하며 가창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한편 한국 황새생태연구소의 주제가로도 불리우는 민경훈 교수의 작품 ‘황새’는 깨끗하고 순수한 서정적인 선율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부 외국가곡 및 민요 프로그램에서는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작품에서부터 민요가 편곡된 국악풍의 한국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고미현 교수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민요 및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강사 박광우는 슈베르트 가곡 송어와 보리수를 연주하며 이태리 가곡과 독일 예술가곡(Kunst Lied)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피아노 반주부의 표현과 시어가 가진 의미의 음악적 표현에 역점을 두어 연주 발표하였다. 한편 작곡가 장일남 편곡의 ‘신고산 타령’은 우리나라 신 민요에 레치타티보(recitativo) 형식이나 헤미올라 장단에 기초한 서양식 리듬의 사용 등 민요와 가곡이 조화된 곡으로 전통음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4부 오페라 아리아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가운데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의 ‘사랑하는 아버지’(o mio babbino caro)와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더 이상 못 날으리’(Non piu andrai)가 연주 발표되었다. 해설의 고미현 교수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무대 예술인 오페라가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창작 오페라가 작곡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학생들에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한국교
통대학교 이강희 교수의 축사와 한국교원대학교 민경훈 교수의 격려사로 마무리된
본 학술대회는 모든 참석자에게 뜻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2015년 창단한 한국성악교육연구회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가창교육을 위한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음악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정치용 교수 지휘_한예중 / 광복 70주년 광화문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에 독창 및 합창단으로 출연하였고, 국제 음악 학술대회
MUSICUM20에서 음악교육 내 가창교육 분야를 연구 발표하는 등 학술활동 연구
분야를 꾸준히 확장해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제시하는 음악교
육의 방향에 적극 동참하여 음악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
는 음악교육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